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발행일 2010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통권 제38호

●●●

권두언

석영중

(회장, 고려대학교 교수)

벽돌과 궁전

어느 공사장에서 세 명의 인부가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현자께서 다가가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인부가 말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부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인부는 두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면서 저 먼 하늘을 한 번 쓰윽 쳐다보더니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어느 책에서 읽은 일화입니다. 유독 이 이야기가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은 우리 인문학자들의 연구도 벽돌쌓기와 비슷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도 인문학자이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인문학자입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번역을 하고 책을 씁니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서 시작된 일인데 가끔씩 이런 일들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인문학 위기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식상해서 더 이상 언급도 하기 싫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인문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희망의 인문학, 소통의 인문학, 대중을 위한 인문학, CEO를 위한 인문학 등등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특히 인문학에 대한 CEO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 수시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대학에 적을 둔 인문학자들에게는 왠지 이런 얘기들이 동떨어지게 들립니다. 강의실에서 체감하는 인문학 수요가 예전만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차고 넘쳤던 시절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문학이란 원래 실용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인문학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공자 시대 맹자 시대에도 위기였고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문학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의미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풀어주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한 인문학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문학의 위기건 아니건, 우리 러시아문학회 회원들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끔 회의가 들더라도, 가끔 맥이 탁 풀리더라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학문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이 존중해주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학문에 대한 고고한 자존심, 그리고 동료 연구자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야 말로 인문학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끝없는 도전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자만이 뒷짐지고 떡하니 버티고 앉아 십년 전 이십년 전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문학의 기본 정신이야 불변이지만 인문학에 대한 세상의 요구는 늘 변화합니다. 인문학자는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인문학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 연구의 방법에 도전합니다. 인문학의 변화는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은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큰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논문 한편, 번역서 한권, 그리고 강의실에서 하는 말 한마디는 벽돌 한 장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벽돌 쌓는 인부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벽 돌 한 장에서 미래를 본다면, 거기서 비전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찬란한 궁궐을 남긴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러시아 문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을 지읍시다! 건승합시다!

●●● 신임이사진 소개

2010년 1월 1일부터 만 2년의 임기로 한국러시아문학회 제 12대 신임 이사진이 출범하였습니다. 학회 소식지를 통해 신임 이사진 명단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직책		성명	소속
회장		석영중	고려대
부회장		백용식	충북대
		박혜옥	상명대
감사		이항재	단국대
총무이사		서상범	부산외대
편집위원장		최병근	안양대
학술이사	문학	변현태	서울대
	어학	김용화	충북대
	문화	김수환	한국외대
이사진		심성보	건국대
		윤새라	울산과기대
		문석우	조선대
		오종우	성균관대
		이규환	대구대
		이명현	고려대
		송은지	서울대
		이강은	경북대
		조주관	연세대
		이기주	고려대
		이지연	한양대
간사	총무	최정현	한양대
	편집	조혜경	단국대

●●● 정례학술논문 발표회 소식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제12대 이사진은 학회의 발전을 위해 충심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따끔한 질책으로 우리 학회가 발전하고 나아가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3월 27일(토),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5, 6회의실에서 한국러시아문학회 2010년 첫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학분과와 문화/문학분과의 두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춘계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모두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남경(경상대)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어학분과에선 경북대 이기웅 회원이 "언어에서 감정의 표현"이란 논문을 발표했으며, 충북대 최문정 회원은 "만주퉁구스어파 알타이언어에 나타나는 러시아어 차용어"라는 논문을 발표해주셨습니다. 토론에는 상명대 박혜옥 회원과 충북대 김용화 회원이 각각 수고해 주셨습니다. 권정임(선문대)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문화/문학분과 회의에선 한국외대 조준래 회원이 "반유태주의와 슬라브문학"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 서울대 변현태 회원께선 "문학의 정치, 정치의 문학-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아방가르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토론은 정보라(연세대) 회원과 오원교(한양대) 회원이 각각 맡아주셨습니다. 특히 이날은 2010년 첫 학회라 더욱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보여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회에 변함없는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지 발간

지난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3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33집에는 김철균 회원(부산외대)의 "쁠라또노프와 표현주의"를 포함한 5편의 문학 논문과 김용화 회원(충북대)의 "러시아 알타이 지역의 소수민족어 문제 - 과거와 현재"을 포함한 3편의 어학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논문전문을 PDF 파일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편집간사: 조혜경(apriori30@hanmail.net, 016-741-0427)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총무간사 최정현,
slovo@dreamwiz.com,
010-3911-7411)

공지사항

▷ 제 59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개최 안내

오는 6월 26일(토) 3시부터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215강의실에서 제59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학분과에서 두 편의 논문, 문화분과에서 한 편의 논문이 하나의 세션에서 진행됩니다. 충북대 김용화 회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세션에는 백경희(경북대) 회원께서 "구어체 담화에서 청자의 반응과 그 화용적 기능 -지지, 반박의 구문 고찰"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시며, 이번 2010년 신입회원이신 김은해(고려대)회원께서 "체코어 속담과 관용적 표현 - 남과 여를 말하다"란 주제로 역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에는 정정원(충북대) 회원과 유승만(한양대) 회원께서 각각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세션에서 진행될 문화분과 논문은 이대식(서울대) 회원이 "뻬쩨르부르그 유형학에 대한 일고"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주실 것이며, 토론은 조유선(국민대) 회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는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사님들께서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발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각 분과의 학술이사[변현태 문학분과 학술이사(straussrun@hanmail.net), 김용화 어학분과 학술이사(yhkim@chungbuk.ac.kr), 김수환 문화분과 학술이사(lotmania@hufs.ac.kr)]에게 발표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 35집 원고 모집

2010년 10월 25일 발간예정인『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제35집에 게재할 논문을 접수합니다. 35집의 논문제출 마감일은 2010년 9월 5일이고, 조기심사 마감일은 8월 5일입니다.
원고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의 심사대상이 되오니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원고 작성은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 투고논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34집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25일 발간예정입니다. 문학, 어학, 지역학(문화) 분야에서 10여 편 이상의 논문이 투고되어 현재 발간 작업 중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08-113번지 안양대학교 인문대학 러시아어과 최병근 교수 연구실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게재 료 변경 안내

지난 5월초에 편집국에서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소식지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25일 발행될 학회지 34집부터 논문게재료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본 방향은 비전임회원의 게재료를 인하하는 대신 전임회원의 게재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도표로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전임회원들의 게재료가 줄어든 만큼 전임회원들의 게재료가 상승했습니다. 전임회원들의

	비전임	전임
논문심사료	4만원	4만원
일반논문게재료	**5만원**(현행10만원)	**20만원**(현행15만원)
연구비수혜논문게재료	25만원	**35만원**(현행25만원)

양해 바랍니다. 게재료 변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홈페이지 새단장 안내

우리 학회 홈페이지가 그간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말끔하게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주소(http://www.russian.or.kr)는 변동없이 예전과 같습니다. 앞으로 학회 홈페이지 관리는 학회 총무국에서 소관토록 하겠습니다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학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르셔서 유익한 연구자료와 정보를 함께 나누고 회원들간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 납부 현황

2010년 6월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 평생회비 완납

(1997년-2010년 6월 현재)

김경태, 김규종,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희숙, 문석우, 박종소, 박재만, 박현섭,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용식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안병용, 안병팔, 오종우, 유승만,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남경, 이대우,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지용, 정명자,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최건영, 최병근, 최 선, 최정현, 최종술,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홍대화, 홍지인 (이상 55인)

△ 평생회비 부분납

(1997-2010년 6월 현재)

김철균(10만원), 김혜란(10만원), 민경현(10만원), 변현태(25만원), 심지은(15만원), 안지영(10만원), 이득재(38만원), 전명선(30만원), 조혜경(10만원), 윤새라(10만원), 서선정(10만원), 오원교(15만원), 이수현(10만원), 전병국(10만원) (이상 14인)

* 현재의 명단은 2010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완납해 주시면 바로 평생회비 완납명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2010년 일반회비 납부현황

(2010.1.1 - 2010. 6.3)

- 개인회원: 김종민, 김은해, 김마리아, 이제우, 최진석, 정보라, 김현정, 권영, 박선영, 백준현(가입비), (이상 10인)
- 단체회원: 고려대, 경북대, 부산외대, 조선대, 한국외대 (이상 5개 대학)

** 개인회원 연회비 납부가 저조합니다. 신입회원님들을 비롯한 기존의 회원님들께서는 회비 납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회원의 연회비 납부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이사님을 비롯한

전임 회원님들께서는 학회지를 구독하는 재직 학교의 도서관이 단체회원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도 회비 납부 안내

아직 2010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 391-910545-94807,
예금주: 석영중(한국러시아문학회)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최초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전임교원/ 5만원
△일반회원/ 3만원
△평생회비/ 비전임 30만원,
전 임 50만원

*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가입비,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완납, 홍길동평생분납)

●●●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공지

이미 공지드렸듯이 올해는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의 족적을 기려 10월 1일과 2일 양일동안 우리 학회는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국에서 10명 이상의 외국학자와 연구가의 참가가 확정되었으며, 국내 연구자들 역시 10편 이상의 논문발표를 신청하였습니다. 러시아의 Андрей Ранчин 교수, 캐나다 북미 톨스토이 학회장 Donna Tussing Orwin 교수, 미국의 Andrew R. Dunkin 인디애나대학 명예교수를 비롯, 인도, 브라질, 이탈리아의 소장학자들이 이번 학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인적 구성에서 비롯해 폭넓은 주제를 담아낼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을 기리는 여러 기념학술대회 중, 전세계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학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세션 구성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전체주제	The International Tolstoy Conference Seoul 2010: "Tolstoy, Live in Seoul"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서울에서 만나는 톨스토이")
제1세션	"Why Still Tolstoy? Revisiting Tolstoy in 21st Century" (왜 아직도 톨스토이인가? 21세기에 읽는 톨스토이)
제2세션	"Body or No Body: A New Glance at Tolstoyan Spirituality" (육체인가 영혼인가: 톨스토이 영성에 대한 재해석)
제3세션	"Tolstoy, From Myth to Biography" (톨스토이, 신화에서 전기로)
제4세션	"Our Glocal Tolstoy" (글로컬 톨스토이)
제5세션	"Tolstoy in Life" (삶 속의 톨스토이)
제6세션	"Tolstoy and Interpretation of Interpretations" (톨스토이와 해석의 해석)
특별세션	"Special Linguistics Session" (언어학 특별 세션)

한국연구재단 선정 연구과제 안내

2010년 상반기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러시아어문학, 문화 관련 개인, 공동과제 선정 현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정 연구자가 우리 학회 회원이냐의 여부를 떠나 러시아, 슬라브어문학 관련 선정연구과제는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수논문사후지원 : **조유선(국민대)** – "러시아 극장문화와 레프 도진의 '앙상블' 극장: <형제자매들>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Vol. 24, No. 2(2009.6), 183~209쪽. **조준배(서울대)** – "스탈린 체제의 등장과 소련 노동조합의 재편, 1928~31", 『역사학보』, Vol. 201(2009), 267~301쪽.

▷ 인문저술지원 : **김상현(한양대)** – 러시아전통혼례문화와 민속, **김원희(한국외대)** – 카스피해에서 흑해로 – 인문사회 地理誌 만들기, **엄순천(동국대)** – 러시아어 담화와 문법화, **이지연(한양대)** – 제국과 기념비: 권력의 재현적 공간으로서의 20세기 러시아 문화

▷ 신진교수지원 : **윤새라(울산과기대)** –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노브고로드 시학, **홍석우(한국외대)** –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의 축일과 국가건설

▷ 학문후속세대양성[박사후 연수] : **이규영(성균관대)** – 러시아 종교예술의 미학성 연구: 숭고미를 중심으로(2년)

▷ 학문후속세대양성[학술연구교수] : **안혁(연세대)** – 새로운 조망: 러시아의 공간의 개념과 문법, **정하경(경북대)** – 러시아어 선형화 연구

▷ 기초공동연구 : **김세일 (중앙대)** – 종합의 역동성과 통합의 메커니즘 : 러시아 '네오-리얼리즘' 연구(2년), **김우승(배재대)** –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적 지본과 사회발전 비교: 중산층 집단을 중심으로(2년)

▷ 기초단독연구 : **기계형(한양대)** – 중앙아시아의 민족, 젠더 그리고 베일(Veil): 1920~193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Hujum'을 중심으로(1년), **김용화(충북대)** – 현대표준러시아어 명사류 변화에 관한 통시적 연구(2년), **남혜현(연세대)** –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어의 변화 양상: 매스미디어 언어에서 언어적 자아의 강화를 중심으로(1년), **이채문(경북대)** – 독립국가연합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연구(1년), **이현숙(부산외대)** – S. 파라자노프의 카프카스 연작 텍스트와 크로스컬처의 문제(1년), **이홍섭(국방대학교)** – 러시아의 민군관계 변화와 민주화(1년), **조준래(성균관대)** – 구 유고권 현대 문화와 '유고-노스탤지어'(3년), **조준배(서울대)** – 스탈린 대숙청과 소수민족: 고려인 사례 연구(2년)

회원동정

▷ 제10대 회장을 역임하신 최성호 회원(충북대)께서 2010년 1년 동안 연구년을 맞이해 미국 UCLA에 체류중이십니다.

▷ 최 선 회원(고려대)께서 2010년 1년 동안 연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이대우 회원(경북대)께서 2010년 1년 동안 연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백용식 회원(충북대)께서 2010년 9월부터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으로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2010년 3월 1일부로 홍택규 회원이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2010년 3월 1일부로 조미경 회원이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세미나와 글쓰기> 강의전담교수(전임강사)로 임용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현영 회원(연세대)이 가을학기부터 2년 기한으로 UCLA, Dept. of Slavic Languages & Literatures로 방문교수(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 지난 3월 6일 백승무 회원(서울대)이 평생을 함께할 반려를 맞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축하합니다.

▷ 지난 4월 10일 김상현B 회원(대구대)이 최숭훈 님을 맞아 아름다운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 지난 5월 30일 김연경 회원(서울대)이 오랜 사랑의 결실을 화혼으로 맺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교원임용, 학위취득, 결혼, 연구활동을 위한 출국이나 귀국 등의 소식을 총무이사 서상범(rusist@hotmail.com), 총무간사 최정현(slovo@dreamwiz.com)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식은 물론, 주변 회원들의 소식도 좋습니다.

●●● 신입회원소개

아래의 19분은 우리 학회의 새 식구가 되신 분들입니다. 입회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왕성한 연구와 활발한 활동으로 학회 운영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권기배 – 한국외대 노어과 졸업, 2004년 상트페테르부르그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표도르 스쩨뿐의 소설 – 시학, 철학>

△ 권영 – 성균관대 러시아어문학과 졸업, 2006년 상트페테르부르그대학교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한국학생들의 언어문화능력 배양을 위한 러시아어 부름말 연구>

△ 김은경 – 부산대 노어노문학과 졸업, 2005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러시아 현대문학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컨텍스트에서의 소로낀의 단편>

△ 김은해 – 한국외대 체코어과 졸업, 2002년 체코 까렐대학교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상 범주연구 – 체코어와 한국어의 상적 표현 연구>

△ 김현정 – 부산대 노어노문학과 졸업, 2009년 상트페테르부르그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세르게이 도블라또프의 책 『우리들』과 현대 소설의 전통>

△ 박영은 – 한국외대 노어과 졸업, 2004년 한국외대 문학박사. 학위논문: <아나톨리 김의 우주론 연구 – 상승

	과 변형의 시학> △ 백준현 –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졸업, 1997년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도스토예프스키 후대 4대 소설의 관념적 예술세계> △ 양승조 – 숭실대 사학과 졸업, 2008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학위논문: <19세기말 ~ 20세기초 러시아 농촌의 사회구조> △ 양영란 – 부산대 노어노문학과 졸업, 2006년 상트페테르부르그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A.C.푸쉬킨 서정시에 나타난 도덕적 가치체계 발전연구> △ 이규영 – 성균관대 러시아어문학과 졸업, 2009년 러시아국립인문대학(РГГУ) 문학박사. 학위논문: <러시아 종교문화의 자각 – 윤리, 미학적 척도에서> △ 이승억 –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졸업, 2009년 게르첸국립사범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1920–1930년대 M.불가코프의 드라마투르기에 나타난 안티유토피아의 요소들> △ 이은경 – 한국외대 노어과 졸업, 2001년 한국외대 문학박사. 학위논문: <안드레이 비또프의 『뿌쉬낀의 집』 –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지우기> △ 이희원 – 한국외대 노어과 졸업,	2000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문학박사, 2007년 미들베리 칼리지 영화학 석사. 학위논문: <꼬르만의 서사주체 분류법 – 저자이론 연구>, <21세기 러시아 예술영화의 새로운 경향> △ 장혜진 – 중앙대 노어과 졸업, 2008년 한국외대 문학박사. 학위논문: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전위'의 시학> △ 정보라 – 연세대 인문학부 졸업, 2009년 인디애나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실존의 변형 – 안드레이 쁠라또노프의 『췌벤구르』와 브루노 야시엔스키의 『나는 빠리를 불태웠다』에서의 유토피아> △ 조준래 – 한국외대 유고어과 졸업, 200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M.M.바흐찐 시학의 통일성 연구> △ 장진희 –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사과정. 학위논문: <다닐 하름스의 「슬루차이」에 나타난 부조리의 윤리> △ 이제우 –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학위논문: <러시아 불법행위법의 체계와 과책> △ 김마리아 – 배재대 러시아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과정

●●● 유관학회, 연구소소식

△ 한국노어노문학회(회장: 최동규)는 오는 6월 12일 한국외대 교수회관에서 한양대학교 HK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과 공동주최로 "체호프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갖습니다. 체호프 개별 작품과 모티프 연구, 그리고 희곡 인물 연구를 비롯, 작품의 영화화, 체호프의 동양에 대한 사유, 그리고 체호프와 현진건, 이태준 작품의 비교 연구까지 다채로운 주제와 방법론을 과시하는 13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한국슬라브학회(회장: 김현택)은 오는 6월 19일 덕성여대에서 하계정기학술논문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어학, 문학, 문화, 역사, 사회과학 등 고른 영역에서 10편의 열띤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소장: 김진원)는 오는 6월 26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한국연구재단 HK 유망연구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첫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에서의 위기와 기회 –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 러시아, 일본, 핀란드 등에서 20여 명의 학자와 연구가가 참가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정치학, 생태학,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윤리론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출발해 탈분과학문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창조적인 대안을 탐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엄구호)의 러시아-유라시아 HK 연구사업단은 국제영문학술지 *Journal of Eurasian Studies*(JES) 창간호를 2010년 1월 발행하였습니다. 연2회 발간되는 JES는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 및 민족정체성 문제를 비롯, 전환기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경제문제,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창간호에는 스테판 화이트, 미하일 엡슈타인 교수 등의 8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신간소개

▷ **저서**

【고백의 제왕】. 이장욱. 창비: 2010년 5월. 2006년 <작가세계>에 실린 "동경소년"을 비롯하여 2009년 겨울에 발표한 "곡란"까지 소설가 이장욱의 근작 모음집이다. 수록 작품으로는 "변희봉", "고백의 제왕", "아르마딜로 공간", "기타 방귀 카타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안달루씨아의 개" 등이 있다.

▷ **역서**

【코틀로반】.안드레이 플라토노프/김철균. 문학동네: 2010년 5월. 문학동네에서 발간하는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 출판된 번역이다.

【우리 시대의 영웅】. 미하일 레르몬토프/김연경. 문학동네: 2010년 5월. 역시 문학동네의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

【서정시에 관하여】. 리디야 긴즈부르그/최종술, 이지연. 나남: 2010년 3월. 20세기 러시아가 낳은 저명

한 문학 연구가 중의 한 명이며, 또한 산문작가이자 에세이스트인 리디야 긴즈부르크의 저작을 번역한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 출판된 이 저서에서 저자는 서정시 이론의 제 문제를 탈역사적인 순수이론적 관점이 아닌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제기함과 동시에,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한 세기동안의 러시아 서정시의 역사를 서정시 이론의 범주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서술해 나가고 있다. 학술진흥재단 주관 명저 번역에 선정된 번역물이다.

【의사 아이볼리트】, 【강도 바르말레이】. 코르네이 추콥스키/이항재. 추콥스키 동화집 2,3. 양철북: 2010년 3월. 현대러시아동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추콥스키(1882-1969)의 운문동화(<악어>, <강도 바르말레이>, <전화>, <도둑맞은 태양> 외), 산문동화(<의사 아이볼리트>), 동시가 수록되어 있다. 추콥스키 특유의 발랄한 상상력, 환상적인 내용 때문에 뒤죽박죽 시, 무의미 시, 장난 시로 불려지고, 이념동화와 교육동화가 판을 치던 소비에트 시기에는 한때 '추콥스키주의'로 비난받기도 했다. 지금은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새롭게 조명되면서 세계동화의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왼손잡이】. 니콜라이 레스코프/이상훈. 문학동네: 2010년 3월. 널리 알려진 <왼손잡이(Левша)>이외에 <분장 예술가(Тупей ный художник)>와 <봉인된 천사(Запечатлений ангел)> 역시 함께 번역되어 있다.

【벨킨 이야기】. 알렉산드르 푸쉬킨/조미경. 계명대학교출판사: 2010년 2월. 『벨킨 이야기』 속 다섯 편의 단편인 <결투>, <눈보라>, <장의사>, <역참지기>, <말괄량이 귀족아가씨>가 번역되어 있으며, 『스페이드의 여왕』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사랑에 관하여】. 안톤 체홉/안지영.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년 2월. 체홉 단편집이다. <굴>, <진창>, <구세프>, <검은 수사>, <상자속의 사나이>, <사랑에 관하여>,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코, 외투, 광인일기, 감찰관】. 이기주.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년 1월. 고골의 가장 중요하고 사랑받는 단편소설들과 대표 희곡 작품을 함께 묶어, 고골 문학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번역서이다. 적재적소 요긴한 역주가 고마운 번역이다.

【무도회가 끝난 뒤】. 알렉산드르 뿌슈낀 외/박현섭, 박종소. 창비세계문학: 2010년 1월. 창비세계문학 1차분 10권에 포함되어 출판된 러시아 작가들의 소품 모음집이다. 뿌슈낀의 <한 발>, 고골의 <외투>, 똘스또이의 <무도회가 끝난 뒤>, 체호프의 <슬픔>, <입맞춤>, 불가꼬프의 <철로 된 목>, 바벨의 <편지>, 뗴피의 <시간>, 자먀찐의 <동굴>, 부닌의 <가벼운 숨결>과 <일사병>, 쁠라또노프의 <암소> 등 러시아문학을 고루 맛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선정된 작품 번역과 함께 간결하지만 핵심을 짚는 해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6.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러시아어과 서상범 교수 연구실내 (사무국)

Tel. 051) 640-3086, Fax. 051) 640-3041 학회 Home Page : www.russian.or.kr